

과잉 보안에 뒤바뀐 희생자 사진...아쉬운 5·18기념식

참석자 입장권 5차례 검색 등 마찰
박근혜 열사 헌혈증 소개하며
사진은 박현숙 열사로 잘못 사용
행사 뒷정리도 안해 쓰레기 눈살
"5월단체 배제 정부기념식 한계"



금희는 '내 피도 뽑아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렸습니다.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에서 상영된 희생자 소개 영상의 한 장면. 영상은 박근혜 열사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박현숙 열사의 사진(오른쪽)을 보여주고 있다. (기념공연 영상 유튜브 갈무리)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기념식”이 지난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보수정권 최초로 3년 연속 대통령이 참석한 기념식이었지만, 지나치게 삼엄한 보안 체계와 행사 내용상의 오류, 무성의한 뒷정리까지 아쉬운 점이 다수 발견돼 '5·18 홀대' 목소리가 높다.

이번 기념식은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입장·개식,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대통령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시작 전부터 묘지 인근에서는 '철통 보안'이 이뤄져 유공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과거 보수정권의 보안보다 더 철통 같았기 때문이다.

민주의 문 인근에 철제 울타리와 철제 바리케이드가 3중으로 설치되고, 참석자의 입장권을 5차례씩 검사하는 등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다.

오월 당시 구속됐던 유공자들은 "5·18당시 계엄군에 끌려가 폭력에 시달렸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다", "지난 정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삼엄한 경비"라며 혀를 내둘렀다.

급기야 일부 유공자들이 "우리가 추모하려고 왔지, 여기가 감옥이다. 우리가 죄인이다"며 철제를

타리 일부를 넘어뜨리는 등 반발했고, 결국 경찰 측에서 일부 철제울타리를 치우는 등 소동도 일었다.

첫번째 기념공연에서는 5·18 학생 희생자의 삶을 조명하는 영상에 영동한 인물의 사진을 넣어 빈축을 샀다.

보훈부는 박근혜 열사가 헌혈을 독려하는 가두방송을 듣고 헌혈 버스에 올랐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상영했는데, 이때 박근혜 열사의 헌혈증 사진과 함께 박현숙 열사의 생전 사진이 사용됐다.

박근혜 열사는 5·18부상자를 위해 헌혈 버스를 탔다가 광주-화산간 외곽도로로 빠져 작전 중인 장갑차의 총격을 받아 숨졌으며, 박현숙 열사는 주남마을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건의 희생자로 전혀 다른 인물이다.

박현숙 열사의 언니인 박현숙 전 5·18유족회 사

무총장은 "난데없이 동생 사진이 나타나 너무 황당했다. 국가보훈부에서 희생자 사진을 바꿨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 기념행사에서 팩트 체크조차 하지 않고 영상을 만들다니, 유가족의 아픔을 한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는지 궁금하다"고 혀를 찼다.

보훈부가 행사장 내에서 배부한 팸플릿에는 오타가 발견됐다.

팸플릿의 '경과' 항목에는 2018년 3월 13일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법'이 제정됐다고 쓰였다. '특별법'을 쓰다가 오타를 낸 것을 그대로 인쇄해 배포한 것이다.

조국 조국혁신당대표는 개인 SNS에 "보훈부의 무성의"라는 게시글과 함께 팸플릿 사진을 게시했다.

박근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언젠가부터 보훈부가 5·18 당사자와 단체를 배제한 채 정부기념식 방향과 키워드, 의전 등을 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고는 기념과 기억의 대상자이자 주인공을 배제한 채 일을 하는 보훈부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행사 뒤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이튿날 묘지 일대가 쓰레기로 뒤덮여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9일 오전 9시께 묘지 추모탑과 추모광장, 민주광장, 역사광장 등 묘지 전역에 행사에서 쓰인 대형 텐트를 철거하고 남은 현수막과 케이블타이, 노끈 조각 등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주 행사장이었던 추모탑 인근 군상환조(청동제 조각품)에는 공원 내 반입이 금지돼 있는 음식 쓰

레기와 빈 페트병, 담뱃갑, 행사 참석자 명찰 등이 버려져 있었다.

결국 묘지 관리소에 이날 오전부터 비상이 걸렸다. 보훈부와 행사 대행사 측이 뒷정리를 안 하고 가는 바람에 뒤늦게 쓰레기를 모두 치워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묘지 관리소 관계자는 "정부기념식을 열면서 보훈부가 이렇게까지 뒷정리를 안 한 것은 처음이다. 온 묘지에 쓰레기가 흩뿌려져 있으니 일일이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다"며 "잡배객이 이 모양을 보면 묘지 관리소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고 비난할 것 아니냐. 도대체 누굴 위해 정부기념식을 연 건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글·사진=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자랑스런 5·18정신, 미래세대가 이어야죠”

44주년 기념식 경과보고 맡은 조선대 기승현·안성연 학생

“선배들이 이룩한 5·18 정신, 후배들이 이어나가야죠.”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경과보고를 맡은 기승현(20·조선대 1년·사진 왼쪽)씨와 안성연(여·22·조선대 3년)씨는 “후배들을 대표해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경과보고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기씨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6일까지 옛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에 살해당한 광주 시민들의 시신을 수거·관리한 기중도 열사의 손자다. 기 열사는 27일 새벽 시신을 곁에 숨어 있다가 부산으로 피신했으나, 부산 헌병대에 계엄법 위반으로 붙잡혀 옥살이를 했다.

기 열사는 1981년 5월 15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이후로도 광주에서 햇볕회 사건에 연루돼 1982년 3월 광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옥중에서 모진 고문과 구타를 당한 기 열사는 후유증으로 1982년 5월 15일 전남대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달 30일 숨졌다.

기씨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와 5·18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역사에도 관심이 많았다”며 “할아버지를 비롯한 민주열사들의 도움으로 우리가 오늘의 오월을 맞이할 수 있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말과 책으로만 접했던 5·18 역사의 현장에 와서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 영광스러웠다”며 “미래 세대에서 자랑스러운 5·18 역사를 이어나가기 위해 꾸준히 5·18 관련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씨는 5·18과 직접 관계되지는 않았으나, 조선대 교육방송국 부장직을 맡으면서 조선대의 추천을 받아 경과보고에 참여했다.

안씨는 “5·18 희생자 중에는 조선대 선배들도 많았다. 숭고한 선배들의 희생을 오롯이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경과보고에 임했다”며 “17일 전야제에 앞서 민주평화대행진에도 참여하고, 국



립5·18민주묘지도 찾아오는 등 주도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이어 “경과보고를 준비하면서 마음 속으로 나도 모르게 묻어두고 있던 5·18을 다시 끌어올리는 느낌이 들었다”며 “미래 세대에서 5·18 영령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오월 정신을 이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오월단체 “윤 대통령 5·18 헌법 수록 미언급 실망”

윤석열 대통령의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에 오월 관계자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18 헌법전문 수록'이 지켜지지 않았고 올해 기념사에서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재혁 5·18유족회장은 “여야 정치권에서 모두 헌법전문 오월 정신 수록에 대한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주길 바랐는데 그러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일부 관계자들은 오히려 과거 대통령들 기념사보다 퇴보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강배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민주화운동과 핵심 테마는 진상규명과 애국 세력 근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는 것이 필요했다”면서 “오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강조하기보다는 개별독재 시대와 같이 경제 부흥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기념사”라고 말했다.

권호영 열사 모친인 유족 이근례(여·86)씨는 “유족과 유공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은 안하고 탄 소리를 하고 가다니, 이러려면 뭐하러 광주에 왔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유연재 기자 yjyou@

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서 당선 무효형 확정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강종만 영광군수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되고,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2부(대법관 김상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 형을 유지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둔 1월 16일 선거구민인 지역 언론인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정병호 기자 jushb@

조선의 시인
아홉번째
시집

지은이 | 조선의
펴낸곳 | 도서출판 상상인 ☎ 02-747-1367

담양에서 길어 올린 아름다운 시편들의 향연 담양, 인향만리 죽향만리

“ 이 시집은 담양을 사랑하는 조선의 시인이
몸소 시가 된 담양의 현사가 아닐까. ”

이성혁(문학평론가)

시인의 말

과거가 / 미래를 향해 / 현재에 살아 있는 곳
담양은 / 말로만 듣는 것보다 / 직접 와서 보면 안다
왜 다시 오고 싶은지

조선의

농민신문 신춘문예, 기독교 신춘문예, 미션21 신춘문예 당선
송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신성문학 대상 등 수상
시집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임의 문장』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창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창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창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